

또래괴롭힘 집단에 따른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모의 부부갈등
Children's Personality Traits, Parent Attachment,
Parents' Marital Conflict, and Aggression/Victimization Status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 박보경*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강사 한세영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최미경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부교수 도현심

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 Park, Bo-Kyung

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Instructor : Han, Sae-Young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Duksung Women's University
Instructor : Choi, Mi-Kyung

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Doh, Hyun-Sim

.....
〈Abstract〉

To examine group differences among four groups divided by aggression/victimization status, 655 4th graders living in Seoul reported their perceptions of peer aggression, peer victimization, personality traits, parent attachment, and their parents' marital conflict. Peers of the subjects also reported their perceptions of peer aggression and peer victimization. Based on the scores of peer aggression and peer victimization, each child was classified into one of the four groups: nonvictimized aggressors, aggressive victims, passive victims, and normative contrasts. For boys, nonvictimized aggressors were more sociable/active than both aggressive and passive victims. Aggressive victims were more shy/emotional than nonvictimized aggressors and normative contrasts, and were exposed to the highest parental marital conflict. For girls, passive victims were the least sociable/active among the four groups, and showed lower attachment to fathers than normative contrasts. Both aggressive and passive victims were more shy/emotional than nonvictimized aggressors and normative contrasts, and normative contrasts were exposed to the lowest parental marital conflict.

.....
▲주요어(key words) : 또래괴롭힘 집단(aggression/victimization status), 또래에 대한 공격성(peer aggression), 또래에 의한 괴롭힘(victimization by pe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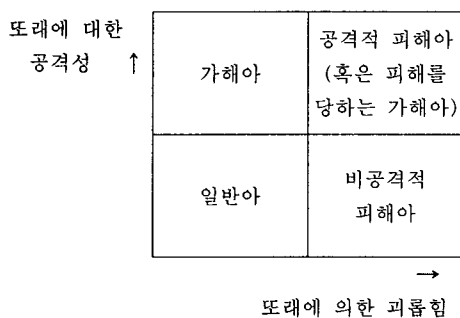
* 주 저 자 : 박보경 (E-mail : pbk0917@hanmail.net)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또래괴롭힘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주로 피해아의 측면에 초점을 두어 혐의의 개념으로 정의해왔으나(신재은, 1999; 양원경·도현심, 1999; 최보가·임지영, 1999), 최근 들어 가해아와 피해아의 두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개념, 즉 광의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김길임·심희옥, 2002; 신재선·정문자, 2002). 본 연구는 이러한 최근 경향에 따라 또래괴롭힘을 광의의 측면에서 정의하여 가해아의 측면을 또래에 대한 공격성(peer aggression)으로, 피해아의 측면을 또래에 의한 괴롭힘(victimization by peers)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들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 공격적 피해아와 비공격적 피해아로 구분된다(Olweus, 1978; Perry, Kusel, & Perry, 1988).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을 처음으로 구분한 Olweus(1978)는 이를 도발적 피해아(provocative victims)와 수동적 피해아(passive victims)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연구자들(Pellegrini, Bartini, & Brooks, 1999; Schwartz, Dodge, Pettit, & Bates, 1997; Schwartz, Proctor, & Chien, 2001)은 또래에 대한 공격성이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일차원적으로 살펴보던 기존의 연구를 한층 발전시켜 또래에 대한 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정도에 따라 이차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또래괴롭힘 현상을 좀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또래에 대한 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점수에 따라 또래에게 공격적이면서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가해아 집단, 또래에게 공격적이면서 동시에 또래로부터 괴롭힘도 당하는 공격적 피해아 집단, 또래에게 공격적이지 않고 또래로부터 괴롭힘만 당하는 비공격적 피해아 집단, 그리고 또래에게 공격적이지도 않고 또래로부터 괴롭힘도 당하지 않는 일반아 집단의 네 가지 하위집단으로 구분하고자 한다<그림 1>.



<그림 1> 또래괴롭힘 집단 구분

또래괴롭힘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주로 아동의 인성특성을 비롯하여 심리적 특성과 부모-자녀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

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연구는 단순히 또래에 대한 공격성 또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이들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을 뿐, 또래괴롭힘에 참여하는 각 하위집단의 인성 및 가정환경 특성에 관해 살펴본 연구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모의 부부갈등과 또래괴롭힘의 관련성을 발견한 선행연구결과들(김민정, 2001; 도현심, 1998; 박보경·도현심, 2002; 박혜경, 2002; 신재은, 1999)에 근거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가해아, 공격적 피해아, 비공격적 피해아, 일반아의 네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또래괴롭힘을 경험하는 아동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또래에 대한 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점수가 모두 높은 공격적 피해아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는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공격적 피해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또래에 대한 공격성이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정도가 훨씬 심하며 비행성향 역시 가장 강하다는 연구결과(황성숙, 1999)가 이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또래괴롭힘 집단에 따른 아동의 인성특성의 차이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발견하기 쉽지 않으나 이와 관련된 몇몇 연구들에 의하면, 가해아는 보다 조직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공격적 행동을 보이며 또래를 지배하거나 물건이나 지위를 얻기 위한 도구적 전략으로 공격성을 사용한다(Dodge, 1991; Olweus, 1978). 반면 공격적 피해아는 불안하고 안전부절못하여 짐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충동적이고 비조직적이고 화를 잘 내고 성미가 급하여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반응적이며 공격적인 반응패턴을 보임으로써 또래의 긴장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한다(Olweus, 1978, 1993a; Stephenson & Smith, 1989). 또한 이들은 과잉활동적이고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을 하며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므로 불안과 우울 정도가 높다(Kumpulainen, Rasanen, Henttonen, Almqvist, Kresanov, Linna, Moilanen, Piha, Puura, & Tamminen, 1998; Kupersmidt, Patterson, & Eickholt, 1989; Rigby, 1998; Schwartz, 2000). 비공격적 피해아는 신체가 약하며 민감하고 불안한 경향이 있으며, 조심스럽고 자기주장을 쉽게 하지 못하고 복잡한 반응을 보이므로 공격을 해도 보복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을 또래집단에게 주기 쉽다(Olweus, 1993a; Schwartz et al., 1997).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가해아는 일반아보다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자기조절 능력이 낮았으며(심선보, 2000; 한영주, 1999), 공격적 피해아와 비공격적 피해아는 가해아보다 불안 정도가 높았다(이민아, 1999). 비공격적 피해아는 가해아보다 우울 정도가 높았고(이민아, 1999), 나머지 세 집단보다 자기주장이 적었다(심선보, 2000; 한영주, 1999). 이처럼 비공격적 피해아가 자기주장과 같은 사회적 능력이 다른 집단보다 현저히 낮다는 결과는 가해아, 공격적 피해아 및 비공격적 피해아를 비교한 연구에서 비공격

적 피해아가 다른 집단보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낮았다는 결과(이민아, 1999)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또래괴롭힘 집단에 따른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의 차이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애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Schwartz와 동료들의 연구(1997)에 의하면, 공격적 피해아는 역기능적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래에 대한 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초래하는 이러한 행동패턴은 가정에서 폭력이나 학대에 노출되거나 처벌적이고 거부적인 양육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적대적인 귀인성향과 분노, 반응적 공격성을 나타내어 또래거부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경험하게 된다(Baldry & Farrington, 1998; Schwartz, 1993). 또한 이들 가족은 가족 간의 의사소통과 긍정적 정서가 부족한 경향이 있었다(Rigby, 1993). 반면 비공격적 피해아가 복종적인 행동패턴을 보이는 원인은 제한적이고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을 경험하여 공격성을 발달시키는 사회화 경험에는 가장 적게 노출되었기 때문이며(Schwartz et al., 1997), 이들의 가족은 서로 과잉집착하며(enmeshed)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과보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졌다(Bowers, Smith, & Binney, 1992, 1994; Finnegan, Hodges, & Perry, 1998; Olweus, 1993b). 이처럼 또래에 대한 공격성이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부모의 역기능적인 양육행동과 관련있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또래를 공격하거나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은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클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에서 또래에게 공격적이거나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은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되어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Finnegan, Hodges, & Perry, 1996; Troy & Sroufe, 1987), 국내의 연구에서도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낮을수록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도현심, 2000; 신재은, 1999).

또래괴롭힘 집단에 따른 부모의 부부갈등의 차이에 대해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가해아와 공격적 피해아 모두 성인의 폭력을 관찰하는 경험을 하였으나, 공격적 피해아는 성인으로부터 폭력을 직접 경험한 반면 가해아는 성인으로부터 직접 폭력을 경험하지는 않았다(Schwartz et al., 1997). 특히 가해아의 경우 공격적인 역할모델에 노출되어 관찰을 통해 목표지향적인 공격적 행동을 학습함으로써 원하는 사회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적 전략으로 공격성을 사용하고 강화에 의해 만성적인 공격적 행동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Schwartz, 1993). 국외연구와 달리, 국내연구에서는 비공격적 피해아가 일반아보다 부모의 부부간 폭력을 많이 관찰하였으며(심선보, 2000), 괴롭힘을 경험하는 공격적 피해아와 비공격적 피해아의 부모는 가해아와 일반아의 경우보다 부부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비신체적 공격성을 많이 사용하였고 비공격적 피해아의 부모는 나머지 세 집단보다 신체적 공격성을 많이 사용하여 비공격적 피해아가 나머지 세 집단보다 부모의 부부간 신체적, 비신체적 공격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정남, 2000).

한편, 또래괴롭힘 집단의 하위집단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네 집단 중 공격적 피해아 집단에 속하는 아동이 가장 적었으나, 각 하위집단의 크기는 선행연구들의 연구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그 첫 번째 방법적 쟁점은 보고자에 따른 차이로, 자기보고에 의해 분류된 공격적 피해아 집단의 크기(2%-28%)는 연구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컸으나, 또래보고에 의해 분류된 공격적 피해아 집단의 크기(4%-8%)는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Schwartz et al., 2001). 이러한 조사도구의 신뢰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동이 직접 자신에게 해당되는 행동을 보고하는 자기보고와 상대적으로 보다 객관성을 가지고 아동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또래보고에 의해 또래에 대한 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측정하고자 한다.

두 번째 방법적 쟁점은 많은 선행연구들이 공격성의 다양한 측면 중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또래괴롭힘은 때리거나 밀거나 차는 것과 같은 신체적 유형, 위협하거나 비웃거나 별명을 부르는 것과 같은 언어적 유형, 그리고 몸짓이나 표정으로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따돌리고 상대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관계적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Olweus, 1993a). 또한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것과 같이 신체적인 해를 가하거나 신체적인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직접적(direct) 또는 외현화(overt) 유형과 집단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킴으로써 또래에게 보복하는 것과 같이 또래관계나 우정에 해로운 조작을 가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간접적(indirect) 또는 관계적(relational)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Crick & Bigbee, 1998; Crick & Werner, 1998). 여아가 공격적 행동을 적게 나타내며 공격적 피해아 중 남아가 더 많다는 과거의 연구결과들은 관계적 공격성을 지닌 여아를 분류해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Crick & Grotpeter, 1995; Pellegrini et al., 1999). 최근의 연구들은 남이는 여아보다 직접적으로, 여아는 남아보다 관계적으로 공격적이거나 괴롭힘을 당한다고 보고한다(Crick & Grotpeter, 1995; Crick & Bigbee, 1998; Crick, Casas, & Ku, 1999). 다시 말해 과거의 연구들은 주로 남아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남아에게 좀 더 흔히 나타나는 직접적 유형에만 관심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직접적 및 관계적 유형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또래에 대한 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직접적 및 관계적 유형을 모두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또래관계가 아동의 삶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Bee, 1997)이며 또래괴롭힘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시기(Perry et al., 1988; Olweus, 1979)인 아동중기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에 대한 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 정도에 따라 아동을 가해아, 공격적인 피해아, 비공격적 피해아 및 일반아로 구분한 후, 이러한 네 집단 간에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모의 부부갈등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또래괴롭힘 집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연구문제

- 1) 또래괴롭힘 집단의 분포는 어떠한가?
- 2) 또래괴롭힘 집단에 따라 아동의 인성특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3) 또래괴롭힘 집단에 따라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4) 또래괴롭힘 집단에 따라 부모의 부부갈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의 세 개 구에 위치한 3개의 초등학교 4학년애 재학중인 아동 655명(남아: 324명, 여아: 331명)이다. 아동중기에 속하는 초등학교 4학년은 아동에게 또래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Bee, 1997)이며 또래에 대한 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시기(Perry et al., 1988; Olweus, 1979)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또래에 대한 공격성 척도, 또래에 의한 괴롭힘 척도, 아동의 인성특성 척도,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 부모의 부부갈등 척도로 구성되며 또래에 대한 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아동의 자기보고와 또래보고에 의해,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모의 부부갈등은 아동의 자기보고에 의해 평가되었다.

1) 또래에 대한 공격성 척도

또래에 대한 공격성은 Crick과 Werner(1998)의 또래지명 척도(Peer Nomination Instrument)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또래 간의 직접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및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고자 고안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또래에 대한 공격성에 초점을 두어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문항들을 제외하고 또래에 대한 직접적 공격성(5문항)과 또래에 대한 관계적 공격성(5문항)에 관한 문항들만을 사용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래에 대한 직접적 공격성과 관련된 문항에는 '나는 다른 아이들을 때리거나 주먹질한다' 등이, 또래에 대한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문항에는 '나는 어떤 아이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뒤에서 나쁜 말을 해서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를 싫

어하게 만들려고 한다' 등이 포함된다.

자기보고용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또래에 대한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보고 점수는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해서 평균을 구한 후, 응답시의 성차를 고려하여 성에 따라 표준화하여 산출하였다. 자기보고용 척도의 내적 일치도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Cronbach's α)는 .87이었다. 또래보고용은 첫번째 행에 동성의 급우들의 이름을 제시하고, 첫번째 열에 자기보고용과 동일한 내용의 또래에 대한 공격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제시되어 있다. 아동은 우선 첫번째 행에서 자기 이름을 \times 표를 한 후, 각 문항에 대해 문항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동성의 급우들의 이름 아래에 3명까지만 \vee 표를 한다. 또래보고 점수는 각 문항에 대해 동성의 급우들이 지명한 수를 합산한 후, 학급간 응답차를 고려하여 각 학급(18학급)에 따라 표준화하여 산출하였다. 또래에 대한 공격성 점수는 z점수로 표준화한 자기보고와 또래보고 점수를 합산한 후 그 평균점수를 구하였다.

2) 또래에 의한 괴롭힘 척도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Crick과 Bigbee(1998)의 사회적 경험 척도(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Peer Report(SEQ-P))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SEQ-P는 또래에 의한 직접적 괴롭힘, 또래에 의한 관계적 괴롭힘 및 친사회적 행동의 수혜(receipt of prosocial acts)를 측정하고자 고안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초점을 두어 친사회적 행동의 수혜에 관한 문항들을 제외하고 또래에 의한 직접적 괴롭힘(4문항)과 또래에 의한 관계적 괴롭힘(5문항)에 관한 문항들만을 사용하여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래에 의한 직접적 괴롭힘과 관련된 문항에는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서 맞는다' 등이, 또래에 의한 관계적 괴롭힘과 관련된 문항에는 '집단활동이나 놀이시간에 누군가가 나에게 화가 나서 집단에서 나를 따돌린다' 등이 포함된다.

자기보고용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당함을 의미한다. 자기보고 점수는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해서 평균을 구한 후, 응답시의 성차를 고려하여 성에 따라 표준화하여 산출하였다. 자기보고용 척도의 Cronbach's α 는 .89이었다. 또래보고용은 앞서 언급한 또래에 대한 공격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었으며, 또래에 대한 공격성과 마찬가지로 또래에 의한 괴롭힘 점수 역시 z점수로 표준화한 자기보고와 또래보고 점수를 합산한 후 그 평균점수를 구하였다.

3) 아동의 인성특성 척도

아동의 인성특성은 Buss와 Plomin(1984)의 아동용 EAS 기질 척도(EAS 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동의

수줍음, 정서성, 사회성 및 활동성을 측정하고자 고안되었다.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수줍음, 정서성, 사회성 및 활동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4가지 요인에 대한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22 - .63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므로 20문항을 varimax 회전방식을 통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4가지 요인으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했을 때, 신뢰도가 .42 - .66 수준으로 높지 않았기에 최종적으로 2가지 요인으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두 요인 모두에서 유사한 요인부하량을 나타낸 한 문항을 제외하였다. 제 1요인은 수줍음/정서성 요인으로 '나는 수줍은 편이다', '나는 자주 안달하고 우는 편이다', '나는 혼자 있을 때, 따돌림당한(소외된) 느낌이 든다' 등 수줍음과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특성을 의미하며, 10문항으로 구성되고 Cronbach's α 는 .73이었다. 제 2요인은 사회성/활동성 요인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있는 것이 좋다', '나는 매우 활력적이다' 등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특성을 의미하며, 9 문항 중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한 문항을 제외하고 8문항을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71이었다.

4)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Armsden과 동료들(1991)의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 개정본(Revise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IPPA-R)) 중 부모에 대한 애착 부분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IPPA-R은 애착이론을 기초로, 청소년들의 부모 및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부정적인 정서적/인지적 차원의 지각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서, 친한 친구에 대한 애착을 비롯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각각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에 관한 문항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각각 동일한 내용의 25문항으로 구성되며,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이해해준다', '나는 아버지/어머니에게 나의 문제와 걱정거리를 이야기한다' 등이 포함된다. 원래의 5점 척도를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25문항 중 신뢰도를 낮추는 2문항을 제외한 23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87,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88이었다.

5) 부모의 부부갈등 척도

부모의 부부갈등은 Straus(1979)가 개발한 갈등대처방식 척도(Conflict Tactics Scales(CT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합리적 대처(Reasoning), 언어적 공격(Verbal Aggression) 및 신체적 공격(Violence)을 측정하고자 고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얼마나 많이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공격적인 역할모델에 노출되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중 '어머니에게 모욕을 주거나 욕을 한다' 등의 언어적 공격에 관한 문항(6문항)과 '어머니에게 물건을 던진다' 등의 신체적 공격에 관한 문항(6문항)을 사용하였다. 신체적 공격 요인 중 현재 우리 나라의 일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칼이나 총으로 위협했다'와 '칼이나 총을 사용했다'라는 2문항을 제외하여 총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원래의 7점 척도를 아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응답 항목수를 낮추어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공격성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에 앞서 2001년 12월 1일에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4학년 2개 학급에서 6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초등학교 4학년 아동에게 적합하도록 질문지 문항의 표현과 분량을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2001년 12월 3일부터 21일 까지 서울 시내 세 개 구에 위치한 3개 초등학교 18학급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훈련된 8명의 조사원들이 각 학급에서 직접 배부·실시한 후 회수된 아동용 질문지 668부 가운데 최종 655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PC +10 program을 사용하였다. 우선 조사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또래괴롭힘 집단에 따른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모의 부부갈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또래괴롭힘 집단의 분포

또래괴롭힘 집단은 또래에 대한 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점수를 기초로 가해아, 공격적 피해아, 비공격적 피해아 및 일반아의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Schwartz와 동료들의 연구(1997)에서와 같이, 또래에 대한 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 점수에 따라 'M(평균)+0.8SD(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하여 가해아는 또래에 대한 공격성 점수는 'M+0.8SD' 이상이지만 또래에 의한 괴롭힘 점수는 'M+0.8SD' 미만인 집단으로, 공격적 피해아는 또래에 대한 공격성 점수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 점수가 둘다 'M+0.8SD' 이상인 집단으로, 비공격적 피해아는 또래에 대한 공격성 점수는 'M+0.8SD' 미만이지만 또래에 의한 괴롭힘 점수는 'M+0.8SD' 이상인 집단으로, 일반아는 또래에 대한 공격성 점수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 점수가 둘다 'M+0.8SD' 미만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연구대상 아동들은 가해아, 공격적 피해아, 비공격적 피해아 및 일반아의 네 집단 가운데 하나에 속하게 된다. 남아의 경우 가해아가 34명(10.5%), 공격적 피해아가 17명(5.2%), 비공격적 피해아가 38명(11.7%), 일반아가 235명(72.5%)이었으며, 여아의 경우 가해아가 31명(9.4%), 공격적 피해아가 21명(6.3%), 비공격적 피해아가 23명(6.9%), 일반아가 256(77.3%)명이었다<표 1>.

< 표 1 > 성에 따른 또래괴롭힘 집단의 분포

또래괴롭힘 집단	남아 (N=324)	여아 (N=331)
	빈도(%)	빈도(%)
가해아	34(10.5)	31(9.4)
공격적 피해아	17(5.2)	21(6.3)
비공격적 피해아	38(11.7)	23(6.9)
일반아	235(72.5)	256(77.3)

2. 또래괴롭힘 집단에 따른 아동의 인성특성

앞서 또래에 대한 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정도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에 아동의 인성특성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4가지의 또래괴롭힘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인성특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사회성/활동성은 남아의 경우 또래괴롭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가해아는 공격적 피해아 및 비공격적 피해아와, 비공격적 피해아는 일반아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가해아는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집단보다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기질을 많이 나타내었으며, 일반아는 비공격적 피해아보다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기질을 많이 나타내었다. 여아의 경우에도 아동의 사회성/활동성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비공격적 피해아는 가해아, 공격적 피해아, 일반아 모두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가해아는 일반아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비공격적 피해아는 다른 세 집단보다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기질을 적게 나타내었으며, 가해아는 일반아보다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기질을 많이 나타내었다<표 2>.

아동의 수줍음/정서성은 남아의 경우 또래괴롭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공격적 피해아는 가해아 및 일반아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또래에게 공격적이면서 또래로부터 괴롭힘도 당하는 공격적 피해아는 가해아 및 일반아보다 수줍음과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기질을 많이 나타내었다. 여아의 경우에도 아동의 수줍음/정서성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공격적 피해아 및 비공격적 피해아는 가해아 및 일반아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수줍음과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기질을 많이 나타내었다<표 3>.

< 표 2 > 또래괴롭힘 집단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활동성

또래괴롭힘 집단	아동의 사회성/활동성				
	N	M	SD	F	Duncan
남아					
가해아	33	3.12	.60	6.17***	C
공격적 피해아	14	2.64	.61		AB
비공격적 피해아	31	2.54	.66		A
일반아	217	2.91	.57		BC
여아					
가해아	29	3.22	.40	12.45***	C
공격적 피해아	21	3.04	.41		BC
비공격적 피해아	20	2.42	.49		A
일반아	252	2.97	.47		B

*** $p < .001$

< 표 3 > 또래괴롭힘 집단에 따른 아동의 수줍음/정서성

또래괴롭힘 집단	아동의 수줍음/정서성				
	N	M	SD	F	Duncan
남아					
가해아	33	1.80	.57	4.43**	A
공격적 피해아	14	2.28	.56		B
비공격적 피해아	31	2.08	.60		AB
일반아	217	1.85	.51		A
여아					
가해아	29	1.99	.37	10.19***	A
공격적 피해아	21	2.32	.52		B
비공격적 피해아	20	2.37	.67		B
일반아	252	1.92	.45		A

** $p < .01$, *** $p < .001$

3. 또래괴롭힘 집단에 따른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

또래괴롭힘 집단에 따른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남아의 경우 또래괴롭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여아의 경우 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비공격적 피해아는 일반아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또래에게 공격적이지 않고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비공격적 피해아는 또래에게 공격적이지도 않고 또래로부터 괴롭힘도 당하지 않는

일반아에 비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낮았다<표 4>.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경우, 남아와 여아 모두 또래괴롭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표 4 > 또래괴롭힘 집단에 따른 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또래괴롭힘 집단	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N	M	SD	F	Duncan
남아					
가해아	33	3.25	.45	.68	ns
공격적 피해아	17	3.09	.50		
비공격적 피해아	38	3.12	.51		
일반아	232	3.13	.47		
여아					
가해아	31	3.08	.38	3.40*	AB
공격적 피해아	21	3.09	.58		AB
비공격적 피해아	23	3.00	.40		A
일반아	255	3.22	.39		B

*p<.05

4. 또래괴롭힘 집단에 따른 부모의 부부갈등

또래괴롭힘 집단에 따른 부모의 부부갈등의 차이를 일원변량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부모의 부부갈등은 남아의 경우 또래

< 표 5 > 또래괴롭힘 집단에 따른 부모의 부부갈등

또래괴롭힘 집단	부모의 부부갈등				
	N	M	SD	F	Duncan
남아					
가해아	32	1.46	.65	5.28**	A
공격적 피해아	17	1.81	.77		B
비공격적 피해아	37	1.38	.49		A
일반아	231	1.34	.43		A
여아					
가해아	31	1.58	.49	11.50***	B
공격적 피해아	21	1.68	.49		B
비공격적 피해아	22	1.57	.39		B
일반아	253	1.29	.40		A

p<.01, *p<.001

괴롭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공격적 피해아는 가해아, 비공격적 피해아, 일반아 모두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공격적 피해아는 다른 세 집단보다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공격성에 많이 노출되었다. 여아의 경

우에도 부모의 부부갈등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일반아는 가해아, 공격적 피해아, 비공격적 피해아 모두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일반아는 또래괴롭힘에 참여하는 다른 세 집단보다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공격성에 적게 노출되었다<표 5>.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 655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또래에 대한 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정도에 따라 구분된 각 집단에 따라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모의 부부갈등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또래괴롭힘 집단의 하위유형별 크기를 살펴보면, 남아와 여아 모두 공격적 피해아 집단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공격적 피해아 중 여아보다 남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던 선행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Schwartz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그와 같은 결과가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이용하거나 여아의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지 않은데 기인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와 함께 또래보고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 및 관계적 유형을 모두 포함하도록 또래에 대한 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남아와 여아를 비교해볼 때 가해아와 공격적 피해아 집단의 크기가 비슷하였다. 이는 관계적 공격성을 직접적 공격성과 함께 측정하였을 때 여아에게서도 공격적인 성향이 남아와 같은 정도로 나타났음을 알려주며, 이는 또래에 대한 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연구에 있어 다양한 유형에 대한 측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래괴롭힘 집단에 따른 아동의 인성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회성/활동성은 남아의 경우 가해아가 공격적 및 비공격적 피해아 즉,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집단보다 더 사교적이고 활동적이었으며, 그 중 비공격적 피해아가 일반아보다 덜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또한 가해아가 일반아보다 더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며, 비공격적 피해아가 다른 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사교성과 활동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공격적 피해아가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특성을 적게 보인다는 결과는 비공격적 피해아가 다른 집단보다 자신을 주장하고 관계를 주도해나가는 사회적 기술이 낮다는 연구결과들(심선보, 2000; 한영주, 1999)과 일치한다.

수줍음/정서성은 남아의 경우 공격적 피해아가 수줍음과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가장 많이 보였으며, 가해아와 일반아는 이러한 특성을 적게 나타내었다. 여아의 경우 또래로부터 괴롭

힘을 당하는 집단인 공격적 및 비공격적 피해아가 그렇지 않은 집단인 가해아 및 일반아보다 수줍음과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많이 보였다. Schwartz와 동료들(1997)은 공격적 피해아를 역기능적 정서조절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공격적 및 비공격적 피해아는 가해아보다 불안 정도가 높고 비공격적 피해아는 가해아보다 우울이 정도가 높다는 결과(이민아, 1999)도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공격적 또는 비공격적 피해아는 다른 집단에 비해 사회성/활동성이 낮은 반면, 수줍음/정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은 사교적이거나 활동적이지 않고 수줍음과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많이 보이는 경우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괴롭힘 집단에 따른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여아의 경우 비공격적 피해아가 일반아에 비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낮게 나타났다. 이외에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또래괴롭힘 집단 간에 어떠한 유의한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종합적으로는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에 있어 또래괴롭힘 집단은 대부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비공격적 피해아인 여아가 일반아보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낮다는 결과는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이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도현심, 2000; 신재은, 1999; Finnegan et al., 1996; Troy & Sroufe, 1987)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래괴롭힘 집단에 따른 부모의 부부갈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은 남아의 경우 공격적 피해아가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공격성에 많이 노출되었으며, 여아의 경우 일반아가 다른 세 집단보다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공격성에 적게 노출되었다. 즉, 부모의 부부갈등에 많이 노출된 경우 남아는 공격적 피해아로, 여아는 일반아를 제외한 가해아, 공격적 및 비공격적 피해아로 나타났다. 공격적 피해아가 다른 집단보다 부모의 부부간 공격성에 많이 노출되었다는 결과는 Schwartz와 동료들(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흥미로운 결과는 네 집단이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보다는 부모의 부부갈등 면에서 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가해아, 공격적 피해아 및 비공격적 피해아가 일반아보다 부모의 부부간 공격성에 많이 노출되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을 배우지 못한 아동이 바람직한 대인관계기술이 부족하여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부적절하게 행동함을 시사한다. 특히, 가해아나 공격적 피해아의 경우 부모의 공격성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공격성을 학습하게 됨을 시사하며, 이러한 결과는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을 지지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모의 부부갈등에 있어 가해아, 공격적 피해아, 비공격적 피해아, 일반아 간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해아는 다른 집단의 아동보다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격적 피해아와 비공격적 피해아는 수줍음과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많이 보였다. 남아의 경우 공격적 피해아가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공격성에 더 노출되어 있으며, 여아의 경우 비공격적 피해아가 일반아보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더 낮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가해아에게만 국한되었던 부정적인 인식과 달리, 특히 남아의 경우, 가해아보다 공격적 피해아에게서 더 부정적인 인성특성과 더 폭력적인 가정환경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가해아보다 공격적 피해아가 더 부정적 정서를 가진다는 Kumpulainen와 동료들(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적 피해아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밝혀,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두고 괴롭힘을 당하는 책임을 공격적 피해아에게 돌리거나 비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관련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는 없었으므로, 또래괴롭힘 집단의 각 하위집단별 특성을 초래하게 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종단적인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 자신과 또래의 보고에 의한 질문지법으로 각 하위집단의 특성과 관련된 변인에 대해 알아보았으나 앞으로는 아동과 그 또래, 부모, 교사를 포함한 다양한 보고자들을 대상으로 심도있는 질적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전에는 단지 가해아와 피해아로 구분되던 집단을 또래에 대한 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정도에 따라 이차원적으로 각 집단을 구분함으로써 가해아, 공격적 피해아, 비공격적 피해아 및 일반아로 구분하여 또래괴롭힘 집단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자기보고와 함께 또래보고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 및 관계적 유형을 모두 포함하도록 측정하여 또래에 대한 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 접수일 : 2003년 11월 15일

□ 심사일 : 2003년 11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01월 16일

【참 고 문 헌】

- 김길임·심희옥(2002). 일상적 스트레스와 또래괴롭힘의 가해와 피해 경험: 학년과 성별 비교. *아동학회지*, 23(5), 139-151.
김민정(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 관계와 아동의 공격성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도현심(1998). 인성특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청소년의 의로움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2), 1-9.
- 도현심(2000). 초기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 부모에 대한 애착, 또래거부 및 우정관계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1(1), 307-322.
- 박보경·도현심(2002).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부갈등과 또래괴롭힘. *아동학회지*, 23(5), 51-64.
- 박혜경(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재선·정문자(2002). 초등학교의 또래괴롭힘 유형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5), 123-138.
- 신재은(1999). 청소년의 애착 및 우정관계와 또래괴롭힘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선보(2000). 가정환경 변인, 심리사회적 특성과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과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원경·도현심(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223-238.
- 이민아(1999). 초등학교의 집단괴롭힘 개입유형과 심리적 특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보가·임지영(1999).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5), 111-121.
- 한영주(1999). 중·고등학교 집단따돌림("왕따")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성숙(1999). 학교내 집단괴롭힘에 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정남(2000). 아동의 또래간 공격성 및 피공격성 실태 및 관련변인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msden, G. C., McCauley, E., Greenberg, M. T., Burke, P., & Mitchell, J.(1991).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early adolescence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683-697.
- Baldry, A. C. & Farrington, D. P.(1998). Parenting influences on bullying and victimization.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3, 237-254.
- Bee, Helen.(1997). *The developing child(8th ed.)*. New York: Longman.
- Bowers, L., Smith, P. K. & Binney, V.(1992). Cohesion and power in the families of children involved in bully/victim problems in school. *Journal of Family Therapy*, 14, 371-387.
- Bowers, L., Smith, P. K. & Binney, V.(1994). Perceived family relationships of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 215-232.
- Buss, A. H. & Plomin, R.(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 Crick, N. R. & Bigbee, M. A.(1998). Relational and overt forms of peer victimization: A multiinformant approa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337-347.
- Crick, N. R., Casas, J. F. & Ku, Hyon-Chin(1999). Relational and physical forms of peer victimization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5, 376-385.
- Crick, N. R. & Grotpeter, J. K.(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rick, N. R. & Werner, N. E.(1998). Response decision processes in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9, 1630-1639.
- Dodge, K. A.(1991).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D. J. Pepler & K. 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201-218). Hillsdale, NJ: Erlbaum.
- Finnegan, R. A., Hodges, E. V. E. & Perry, D. G.(1996). Preoccupied and avoidant coping during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7, 1318-1328.
- Finnegan, R. A., Hodges, E. V. E. & Perry, D. G.(1998). Victimization by peers: Associations with children's reports of mother-child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076-1086.
- Kumpulainen, K., Rasanen, E., Henttonen, I., Almqvist, F., Kresanov, K., Linna, S. L., Moilanen, I., Piha, J., Puura, K. & Tamminen, T.(1998). Bullying and psychiatric symptoms among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Child Abuse and Neglect*, 22, 705-717.
- Kupersmidt, J. B., Patterson, C. & Eickholt, C.(1989). *Socially rejected children: Bullies, victims, or both? Aggressors, victims, and peer relationships*. Paper presented at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Kansas City, MO.
- Olweus, D.(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Hemisphere.
- Olweus, D.(1979). Stability of aggressive reaction patterns in males: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6, 852-875.
- Olweus, D.(1993a).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Cambridge, MA: Blackwells.
- Olweus, D.(1993b). Victimization by peers: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 H. Rubin and J.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315-341). Hillsdale, NJ: Erlbaum.
- Pellegrini, A. D., Bartini, M. & Brooks, F.(1999). School bullies, victims and aggressive victims: Factors relating to group affiliation and victimization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1, 216-224.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Rigby, K.(1993). School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families and parents as a function of peer relation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4, 501-513.
- Rigby, K.(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reported health and involvement in bully/victim problems among male and female second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3, 465-476.
- Schwartz, D.(1993, March). *Antecedents of aggression and peer victimization: A prospective study*.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New Orleans, LA.
- Schwartz, D.(2000). Subtypes of victims and aggressors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 181-192.
- Schwartz, D.,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1997). The early socialization of aggressive victims of bullying. *Child Development*, 68, 665-675.
- Schwartz, D. Proctor, L. J. & Chien, D. H.(2001). The aggressive

victim of bullying : Emotional and behavioral dsregulation as a pathway to victimization by Peers. In J. Juvonen & S. Graham(Eds.), *Peer harassment in school: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 (147-174). New York: The Guilford Press.

Stephenson, P. & Smith, D.(1989). Bullying in the junior school. In D. P. Tattum & D. A. Lane(Eds.). *Bullying in schools. Stoke-on-Trent: Trentham Books.*

Straus, M. 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Troy, M. & Sroufe, L. A.(1987). Victimization among preschoo lers: Role of attachment relationship histor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 166-172.